

OPEC의 하류부문 진출

OPEC (석유수출국기구)의 소비국 하류부문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89년 1월 현재 쿠웨이트·베네수엘라·사우디아라비아·리비아·아랍에미리트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정제설비능력은 모두 1,192천b/d에 달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된 공급계약량은 1,670천b/d로서 상기 5개국 수출물량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國家들은 90년대초까지 해외정제능력 보유량을 지금의 2배 이상 확장할 계획이며, 나이지리아도 500천b/d의 진출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다. OPEC의 소비국 하류부문 진출배경은 ①안정된 판로확보 ②原油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정제판매부문의 이익확보는 가능하기 때문에 石油收入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OPEC의 하류부문 진출에 대한 소비국의 반응은, 당초는 에너지안전보장등의 측면에서 경계심을 가졌으나, 현재로서는 원칙적으로 환영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美國정부는, 산유국의 하류부문 진출은 소비국과의 상호이익을 증대시키고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높힘으로써 에너지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우디의 對美하류부문 진출의 관건인 사우디·텍사스 합병회사설립(정제능력 615천b/d)에 대해서 미국의 獨立系 석유회사가 「反트러스트法」등 다방면의 사법적 제소를 하였으나, 그 결과는 기각으로 판명되고 있다. EC위원회의 견해도 美國정부와 大同小異하며, 다만 OPEC의 투자형태로서는 100% 매수방식보다 산유국과 소비국 양자의 이익을 병립시킬 수 있는 合併會社 설립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日本은 아직까지 산유국의 하류부문 진출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석유산업 규제완화추세에 맞추어 이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쿠웨이트는 日本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하류부문 진출에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으며, 이 지역 진출을

위해서 종래의 100% 買收方式에서 탈피, 합병 내지 지분참여방식도 모색중이다. 현재 中立地帶 석유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의 Arabian Oil社는 향후 쿠웨이트의 對日 하류부문 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까지 OPEC의 하류부문 진출은 西歐와 美國에 국한되었으나 앞으로는 극동 및 동남아시아지역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의 石油수요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신장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신흥공업국이 집중되어 있어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쿠웨이트의 움직임외에 이미 아랍에미리트는 中國 深川지구에 합병형태의 정유공장건설계획을 추진중이다.

OPEC의 하류부문 진출이 소비국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으로는 ①진출이 과도할 경우 安保上の 위협이 될 수 있고, ②에너지源 다양화·原油導入先다변화정책을 역행시킬 수 있으며, ③국내 석유산업과의 경영상 마찰, 경쟁심화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유리한 측면도 많은데 예컨대 ①공급안정성의 향상, ②관련석유사업 자금조달원의 다양화, ③산유국과의 상호 이해·협조관계강화, ④국내 석유산업이 역으로 산유국 상류부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극동지역 소비국에 있어서는 지금이 OPEC산유국과의 합병 또는 지분참여를 검토하기에 좋은 시기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부 OPEC국이 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의사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의 石油市況이 아직은 消費國에 有利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90년대 중반초에 예상되는 OPEC 영향력강화에 사전 대비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동향〉